위험은 어떻게 외주화되는가

- 비주류사진관 '삶을 잇는 골목사진전'에서 드러나는 노동의 계급성

최치원 회원, 변호사

어린 시절 봉래동 조선소 앞을 지나다니며 울타리 너머로 보는 풍경은 언제나 비슷했다. 용접 불꽃이 튀고,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는 모습. 벽 밖에서는 그저 '일하는 사람들'로만 보였던 그들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벽 밖에서는 보이지 않는 차이

▲ 같은 일을 하지만, 다른 안전 아래 있는 노동자들. 사진 : 정남준

이번 전시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작품이다.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도정 작업을 하는 노동자들이지만 그들이 노출된 위험의 정도는 다르다. 왼쪽 원청 소속 노동자들은 원청에 직고용된 노동자들로, 회사에서 지급한 통일된 안전모와 작업복,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있

다. 이들이 사용하는 고소작업차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튼튼한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다. 반면 오른쪽 하청 소속 노동자들의 환경은 다르다. 이들은 안전모 대신 각자 준비한 스카프로 머리를 보호한다. 이들이 서 있는 곳은 지게차 위에 임시로 설치한 작업대다. 불안정한 작업대는 언제 흔들리거나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다.

2023년 한 해 동안 한국 조선업에서만 51명이 산재로 사망했다. 매년 2,000명 이상의 조선업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당하고, 40명 이상이 목숨을 잃는다. 이 숫자들 뒤에는 벽 밖에서는 보이지 않는 체계적인 위험의 위계가 숨어 있다. 조선업에서 업무상 사고 사망만인율[1]은 원청(0.00)▶원청+상주 및 비상주 하청업체(0.39)▶원청+상주 하청업체(0.41)의 순으로 나타나, 하청업체가 포함될수록 업무상 사고로 사망하는 비율이 극명하게 높아졌다.[2]

작업장 내의 위험이 고용형태를 따라 위계화된 가까운 사례를 보자. 2024년 아리셀 참사는 안전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계적으로 보장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같은 공간에서 작업하던 23명이 사망했지만, 그 중 87%가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상구로 가는 통로의 출입 권한이 없어 대피할 수 없었다. 고용 형태가 생사의 경계를 직접 갈랐다.

이 한 장의 사진은 현대 한국 사회의 노동 구조에 내재한 외주화 구조의 단면을 드러낸다. 원청과 하청이라는 고용 구조는 단순한 업무 분담이 아니라 위험의 위계를 반영한다.

'조심조심 코리아'의 아이러니

▲ 봉래동 골목 벽면에 걸린 '조심조심 코리아' 전시 사진. 사진 : 최치원

1) 산재보험적용근로자수 10,000명당 발생하는 업무상사고 사망자수의 비율

2) 산업안전보건공단. 2016.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 통계 산출 연구보고서.

다른 인상적인 작품 '조심조심 코리아'는 현장의 아이러니를 선명하게 드러낸다. '조심조심 코리아'라는 글자가 써진 안전모를 쓴 이주노동자의 사진과, 안전모 대신 머리에 스카프를 두른 채로 웃고 있는 하청 소속 노동자의 사진이 나란히 걸려있다.

'조심조심 코리아'는 '빨리빨리' 문화의 안전 불감증을 극복하겠다며 2010년 도입되었다. 하지만 개인이 아무리 조심하더라도,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사고나 위험이 누적되어 발병하는 업무상 질병을 피할 수는 없다. 현장에서 '조심조심'이라는 구호는 무력하다. 안전모는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전가하는 도구가 되고, 심지어 하청 소속 노동자는 이마저도 받지 못한다. 이 사진은 한국 사회의 안전 담론이 얼마나 개인화되어 있는지, 또 얼마나 위계화 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시지프는 죽지 않을 권리가 있다

선박의 프로펠러 원통 안에서 청소하는 노동자를 담은 또 다른 사진은 현대사회의 노동을 은유한다. 사람만 한 사이즈의 부품 안에서 청소하는 노동자의 모습은 마치 쳇바퀴를 도는 듯하다. 좁은 원통 안에서 끝없이 반복되는 작업은 시지프가 바위를 굴리는 모습과 겹친다.

알베르 카뮈는 노동을 시지프의 형벌에 비유했지만, 그 안에서도 자유와 긍정을 찾을 수 있다고 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끝없이 노동해야 하는 존재이고, 노동이 보람찰 수만은 없으며 형벌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불가피한 처지를 인정하는 것과, 위험을 개인화하고 외주화하는 구조에 단념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차원이다. 인간은 노동해야만 하는 존재이기에 더더욱 누구나 위험하지 않을 권리, 죽지 않을 권리가 있다. 시지프는 바위를 굴려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죽어야 할 이유는 없다.

비주류사진관 '삶을 잇는 골목사진전'은 부산 영도구 봉래동 외나무길 73 골목에서 2025년 5월 3일부터 무기한으로 열린다. 골목을 걸어 올라가면 철제 슬레이트 지붕의 집들과 조선소가 한눈에 보이는 위치에 사진들이 설치되어 있다. '삶을 잇는 골목사진전'은 단순한 사진전이 아니다. 조선업의 발상지에서 위험의 위계를 목격하고, 벽 밖에서는 보이지 않던 차이들이 드러나는 체험의 공간이다. 일터